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3차회의

일시: 6월 23일 장소: 광주일보 회의실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3차 회의가 지난 23일 광주시 동구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하 위원장을 비롯해 임효택·정의춘·강대석·장우철·이묘숙·조미옥·김경태·이철갑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아홉 명이 참석했다. 독자위원들은 지난 5~6월 지방선거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5·18민주화운동 34주년 등으로 숨 가쁘게 취재현장을 누빈 광주일보 기자들을 격려하면서, 세월호 참사로 깊은 슬픔에 빠진 지역민들을 위해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기를 당부했다.

“세월호 두달 벌써 잊었나” 1면 기사... 언론의 역할 보여줬다

〈6월 16일자 보도〉

임효택 (동일전자정보고 교감)



전국소년체전 비인기 종목
투자·지원 등 관심 유도를

정의춘 (광주YMCA시민운동팀 총괄팀장)



연임 성공한 자치단체장
과거 공약 이행 점검 필요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장마 대비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중요성 부각을

장우철 (광주재능기부센터 사무처장)



안타까운 '세월호 참사'
어민 고통도 들여다봐야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소비자·자동차 심층 보도
유익한 생활정보 큰 도움

▲임효택=현역 육군병장이 부대원들을 사살하고 탈영하는 조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잊을 만 하면 발생하는 군부대 사고, 반복되는 학생들의 자살문제 등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다. 공지에 몰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은 가족과 사회를 향해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잠시 관심을 기울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신뢰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다.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사건을 막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는데, 언론의 책임이 막중하다.

최근 인천에서 개최된 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광주시 선수들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광주·전남선수들이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비인기 종목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중요하다. 새롭게 출발하는 광주시가 어린 선수들을 발굴해 육성하고, 시민들의 격려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의춘=광주YMCA는 세월호 참사 이후 실종된 마지막 1인이 발견될 때까지 팽목항을 잊지 않도록 매주 방문할 예정이다. 비극적인 참사를 잊지 않도록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힘쓰고 있는 만큼, 언론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기 바란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당부한다.

지방선거를 통해 광주시 5개 구청 중 4개 구청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구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들을 축하하면서도 그들의 과거 공약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지켜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새롭게 임명된 단체장들의 단순한 인터뷰가 아닌 공약과 정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획기사가 필요하다.

▲강대석=지난 6월 16일 1면 김형호 기자가 고발한 '세월호 두달, 벌써 잊었나?' 전남 연안 여객선 직접 타보니 르포 기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안전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승객안전은 여전히 뒷전인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보며 안전에 대한 불안,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늘어났다. 여객선 이외에도 우리 주변 산재한 위험 요소를 지적하는 기사를 꾸준히 발굴해 주길 바란다. 특히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재난위험이 커지는 만큼, 사회 전반적인 안전상태 점검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1면 기사 등에 함축적인 제목의 기사가 많다. '짧은 나라, 농심은 벼랑, 답답한 미(米)래'. 지난 6월 20일 1면 기사 제목이다. 기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편집자가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제목이었다. 작잡한 농민들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제목과 불타는 들녘 사진이 1면에 배치돼 독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지면이었다. 다만 지나친 함축으로 한글이 파괴되지 않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장우철=세월호 사건 직후부터 현장에서 땀 흘린 사진기자들의 노력이 박수를 보낸다. 덕분에 독자들은 안방에서도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접할 수 있었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대부분 언론사들이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하지만 사고 해역 인근에서 기름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한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이에 대한 취재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사건 등 대형참사가 이어지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었다. 특히 시의원, 구의원 등의 공약과 인물에 대한 언론의 검증작업이 부족했다. 지역언론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초의원들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야 할 의

무가 있다.

▲이묘숙=지난 5~6월 큰 이슈가 있었지만 광주일보가 지면을 늘린 덕분에 지역과 문화계에 대한 소식이 충분히 잘 전달됐다. 대형사건사고의 영향으로 다른 신문들은 문화, 지역 소식을 대폭 축소했지만 광주일보는 예전처럼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 또한 자동차·소비자면 등이 강화돼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다. 광주일보에서 중요 사안에 대한 정보도 연지만, 연비에 도움되는 운전법, 여름철 에어컨 관리법 등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도 알 수 있어 좋았다.

선거 후 새롭게 취임한 단체장들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기사가 기획시리즈로 게재되고 있다. 그런데 기사를 살펴보면 인수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존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보도 자료는 취재원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포함한 자료다. 시민과 독자들이 궁금해 하고 알아야 할 부분을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보도해 주길 바란다.

▲조미옥=광주일보 '문화가 흐르는 공간' 시리즈에서 소개되는 공간을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가는 등 신문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 세월호 참사 후 전 국민이 우울해 하고 있지만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해 독자들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 특히 자유학기제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더욱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컬처 & 피플', '피플 & 라이프' 지면은 다른 지역 신문과 광주일보가 차별화되는 강점이다. 시간이 지나도 다시 보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아침 신문에서 기다리고 있다. 가슴 아픈 사건이 많을수록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더 꾸준히 발굴해 주길 바란다.

▲김경태=지하철 2호선,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광주시의 주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이는 광주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커다란 사안을 다룰 때 광주의 시선과 함께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전남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의견을 들어주길 바란다. 최근 현대극장이 없어지는 등 지역민의 추억이 깃든 장소가 사라지고 있다. 왜 이런 곳이 없어지고 활력을 불어 넣을 방안은 없는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흐름이 생겨나고 있는지 광주일보가 앞장서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철갑=광주일보가 최근 증면을 단행하며 글씨 크기를 키우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 글씨가 커졌다는 사실도 별로 느껴지지 않고, 중앙일간에 비하면 글씨체가 보기에 불편하다는 생각이 여전히 든다. 문화면과 지역면이 늘어났지만 내실있는 기사는 늘지 않고, 사진 크기와 여백만 늘어났다는 생각을 했다. 늘어난 공간만큼 공영일정을 소개해주는 지면이나, 지역 축제를 알리는 내용을 고정적으로 게재했으면 좋겠다.

찰시장 개방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단발성 기사가 아쉽다. 국가정책이 시행되면 농민들과 시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광주일보가 앞장서 고민해 주길 바란다.

▲김윤하=지난 두 달간 광주일보 기사 중 가장 돋보였던 것은 6월 16일자 1면 '세월호 두 달 벌써 잊었나'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많은 언론에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기사를 다뤘지만 김형호 기자의 기사만큼 정확하게 보여준 내용은 없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고발 기사가 단발로 그치지 않고, 개선될 때까지 살피주길 바란다. 증면 이후 소비자, 자동차, 생활경제 지면이 강화됐다. 경제면이 다소 딱딱하고 어려워질 수 있지만 가벼운 경제정

조미옥 (빛가람중학교 교사)



'문화가 흐르는...' 시리즈
학생·학부모에 유익

김경태 (광주은행 홍보실장)



현대극장 등 추억의 명소
사라지는 원인 고민해야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찰시장 개방 등 중요 사안
단발성 아닌 꾸준한 보도를

김윤하 (전남대병원 병원장 직무대행)



월드컵 전사 5명 배출
금호고 기사 시의 적절

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먼저 찾게 되는 지면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관심물건을 통해 지역에서 나온 물건을 사진과 함께 감정이 등을 자세히 설명해 매우 유익했다.

지난 6월 18일자 2면에 소개된 '월드컵 전사 5명 배출, 금호고는 축구 명문' 기사는 시의적절하면서 다른 신문에서 볼 수 없는 광주일보의 취재력이 돋보였던 기사였다. 다른 신문에서 찾을 수 없는 광주일보만의 기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정리=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부사시사
전복요리 전문점

여름철 별미
황칠나무로 우려낸
전복삼계탕 15,000원

점심 특선 메뉴

- 전복 비빔밥
- 전복 뚝배기 ₩8,000원
- 전복 갈치찜
- 전복 갈비찜
- 전복 생우럭지리

목포 용해동사무소 뒷편 ☎(061)278-4111

기본에 충실하며 품질이 최우선하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듭니다.

조경식재 도장 금속구조물 창호 조경시설물 상·하수도

목포시 삼각로 13번길 (유)아지건설 / (유)명현건설